

1990 3

가정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The Family Altar



〈충현제자훈련중 새벽운동 모습〉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의 노래할때가 이르렀는데 ...”(아가 2:1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 강남구 역삼동 665-1 전화: 552-8200

빌립보서

빌립보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여행 중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소아시아에서 선교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고 드로아까지 오게 되었는데 거기서 소위 ‘마게도니아에로의 부름’을 받게 되어 빌립보에 복음을 전하는 개기가 되어 빌립보교회를 세우게 되었다.

자주장사 루디아와 그 가족의 구원을 통하여 그 지역 복음화의 첫걸음이 시작되었고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그 가정의 구원을 받게 되었다. 감옥 중에서도 찬송하고 기도하는 바울과 실라는 능력의 산 증인이 되었다. 특히 여자들의 활동이 두드러진 교회였다.

이 서신의 기록 목적은 빌립보 교회가 예바브로디도를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선물과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보냈는데 시중을 드는 동안 죽을 병에 걸렸으나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회복시켜 주셨다. 바울은 이 소식을 빌립보로 전하고 선물에 대한 감사를 전달하며 자신의 근황을 영적 자녀들인 빌립보교인들에게 알리고자 했다(1:12-2:24). 또한 영적인 경고 및 권고를 하기 위해서 본서를 기록했다(3:2-16) 유대주의자에 대한 경고, 3:17-4:1 반 율법주의자에 대한 경고, 4:2 주안에서 하나 되도록, 2:1-11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3월의 기도제목

1.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을 위하여
2. 이종윤 위임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하여
3. 기쁨부은 장로님들의 믿음과 사역을 위하여
4. 청소년들을 복음으로 지키시도록
5. 사랑의 집, 복지 마을건립을 위하여
6. 충현세계선교원 계획을 위하여
7. 교회학교 부흥을 위하여

※3월호 만나에 실린 메시지는 이종윤 목사님의 메시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3:13)

뜻대를 향하여 성도는 앞에 있는 뜻대를 향하여 나가기 위해 과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됩니다. 삶은 현재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과거만 바라보고 있으면 지금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새로운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시는데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에 받은 은혜에 대한 간증만 하고 있다면 새로운 은혜를 받을 준비는 할 수가 없는것입니다. 집사나 장로의 자리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자리에 이른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힘써 자기 개발을 하고 발전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으므로 기억하며 쉬임없이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나'라고 말합니다. 오직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과거를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뜻대를 향하여 나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식에 빠져서 자기가 죄 지은 것을 갚는다고 오랜 시간을 허비하기도 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과거에만 집착하는 사람입니다. 과거에 지은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사람이 되었으므로 털어버려야 합니다. 기독교는 자유의 종교요 희망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과거를 잊어버리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뜻대를 향하여 나가야 됩니다. 기독교는 또한 미래지향적입니다. 과거는 미래의 완성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며 미래는 과거에 의하여 제약될 필요가 없습니다. 뜻대가 없는 사람은 뜻대를 향하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생의 목표가 없는 사람은 인생중에 가장 불쌍한 인생입니다. 성도는 과거의 일들이 좋든 나쁘든 빨리 잊어버리고 뜻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것이 되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고후 5:17). 과거에는 다른 사람 앞에 한없이 손가락질을 받고 악한 일을 행하던 사람이라도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입니다. 앞을 향해 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3:14)

성도의 무기 성도는 자신과 투쟁을 해야 됩니다. 환경과도 싸워야 합니다. 우리를 방해하는 이 세상의 어두움의 권세와 전투를 해야 됩니다. 이럴 때에 성도에게는 무기가 필요합니다. 진리와 의와 복음과 신앙과 구원과 하나님의 말씀이 그것입니다(엡 6:14). 그러나 사람들은 세상의 무기를 더 좋아하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영전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지혜, 자기 만족, 물질, 성공 혹은 유명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전투복은 못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 물질, 혹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만족할 만한 어떤 것들 자랑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악마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착각이요 큰 오류입니다. 사도 바울은 좋은 도구를 다시 한 번 확인을 시켜 줍니다. ‘내가 여러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3:18) 바울이 지금 눈물을 흘리면서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를 속이는 것이 되며 하나님 앞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감당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힘으로 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든지 하는 것이지 자신의 능력과 어떤 도구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할바를 구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 싸워 주셔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정병이 되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을 사는 존재가 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무기를 가지고 전투적인 자세로 승리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정사와 권세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이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기도 세상적인 어떤 것들로 영전에 임하지 않게 하옵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모든 남녀 교역자님들의 영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이론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3:15)

하나님과 교제하며 성도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모든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그 계획은 무엇이며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고 하셨으니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많은 노력과 의지를 가져야 됩니다. 항상 ‘왜’라는 질문 속에서 지금의 형편이, 우리 교회가 왜 이런 모습일까를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듯 우리의 갈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품 안에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가운데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경건생활과 성결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주님께 기쁨이 안된다면 그 일은 진행할 수가 없으며 주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되면 어렵고 힘들어도 무슨 일을 행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는 이것이 성도가 일을 하는 태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뜻입니다(골 3:23). 성도는 또한 주님과 긴밀한 교제를 하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록된 성경 속에서 그의 음성을 들으며 말씀대로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시 37:5) 하나님께서는 인생들에 대해서 이미 모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명령을 하셨으므로 인생은 충성과 정성을 다해서 그 뜻을 이루려고 힘만 쓰면 됩니다. 옛사람은 죽어서 장례치르고 난 후에 예수님이 우리를 영광의 부활로 새롭게 창조시켜서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될 때에 성도는 온전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성결, 거룩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살피게 하옵소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하옵소서.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3:17)

지혜로운 걸음 사람의 몸가짐 중 특히 걸음걸이는 심적 동향과 정신적 자세를 짐작하게 해줍니다. 권투선수가 정확하게 상대방을 때려야 되는 것처럼 성도는 지혜있는 사람으로서 행보도하고 생각도 해야 됩니다. 구부러지지 아니하고 단정히 빗 가운데서 행해야 됩니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목표를 가지고 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본문을 보면 함께 본받으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수많은 생명들이 함대를 이루고 천국을 향하여 세상 바다를 헤쳐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 함대가 목표점에 잘 도달하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목표를 설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며 달려가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적인 활동은 조심을 하며 다른 성도의 길을 막거나 행로를 제지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좌절한 자에게는 힘을 주고 슬픔에 처한 자에게는 격려를 하며 교회라는 공동체의 한 지체로서 살아가고 행보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그 명령은 친구 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우신 종들과 입술과 기도를 통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말이나 자기 의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분별해야 됩니다. 기록해 지는 방법은 진리의 말씀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계시하는 수단이 되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참으로 부도덕한 생활을 했던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13절, 14절, 오직 두절 밖에 안되는 말씀으로 그의 일생이 변화가 일어나고 새사람으로 출발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말씀을 통하여 속사람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세상의 좋은 책을 읽는 것도 필요하고 인격 수양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힘써 연구하며 그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 중에는 겉사람부터 변화려고 노력을 하며 그것이 안될 때에 곧잘 좌절에 빠저곤 합니다. 속사람이 거듭나면 겉사람은 저절로 바뀌게 됩니다. 말씀만 의지합시다.

기도 우리의 걸음이 다른사람을 방해하는 걸음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옵소서. 일제의 압박을 받았으나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3:18)

성별된 삶 본문을 보면 세상에는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율법의 의로 교만해진 유대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을 받았음에도 스스로 의를 행하고 법을 지키므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는, 십자가의 공로를 무시하는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원수는 유대인들입니다. 또한 믿음의 의로 자족하는 완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남을 비판하며 정죄하는 자들입니다. 죄를 고백할 때에 십자가가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완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죄가 없다고 하는 완전주의자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교회 안에는 또 자유방임주의자들이 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를 무시하고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도리를 함부로 취급하는 자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이밖에 교회 밖에 있는 방탕한 불신자들,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한 이들은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십자가원수의 결국은 어떠할까요. 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전부 죄덩어리이므로 마지막결과는 멸망 뿐입니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는데 그 십자가의 원수가 되었으니 멸망 밖에는 받을 것이 없습니다. 저들은 배로 하나님을 삼습니다.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것으로 영광을 삼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 사람의 결국은 멸망 밖에는 없습니다. 유대주의자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사람들, 자유방임자들, 혹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하고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 성도는 이와 같이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말고 주님의 동역자로서 그리스도로 부터 명령을 듣고 순종하는 성별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초대교회에는 정욕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라고 불리주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므로 사랑해야 합니다.

기도 자신도 모르게 교만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적이 많음을 용서하옵소서. 겨울에 움츠렸던 우리의 영혼도 새힘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3:20)

종말에 대한 소망 세상에는 많은 소망, 많은 복이 있지만 그 소망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복된 소망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가 속한 곳은 하늘나라이고 이 세상은 잠시 왔다 가는 곳이므로 그곳으로 부터 모든 구원,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이 영원한 소망, 복된 소망을 갖기 위해서 부단히 기도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 기대와 신앙은 초대교회 교인들을 기쁨으로 가득 채우게 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위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살면 흔들리지 않고 땅 위의 일도 성공할 수 있거니와 땅만 바라보고 산다면 위기가 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을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므로 확실해졌습니다. 예수 재림은 분명한 역사적 사건이 될 것이며 그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재림을 믿는 신앙, 예수 재림을 바라보는 이 소망은 매우 복받은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삶과 행위에 변화를 가져옵니다. 마음가짐과 행동을 성결하게 합니다. 우리가 환난중에도 즐거워하는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가져오게 하기 때문에(롬 5:3-4) 하나님 앞에서 고난이 소망을 가져온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고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결국은 환난이 소망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나 불신 자들은 고난이 절망을 가져옵니다. 이것이 신자와 불신자가 세상을 사는 방법의 차이입니다. 성도는 미래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를 결단하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산 자와 죽은 자에 대한 심판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의 두개의 큰 줄기는 선지서와 종말론적인 묵시록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도 매를 맞는 묵시적인 그 사상으로 각오와 결심을 새롭게 합시다.

기도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오시는 그날 우리모두 천국 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재정의 60%를 구제비에 사용하게 하옵소서.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하시리라」(3:21)

그리스도의 신성 기독교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두 사건 위에 신앙을 건설했습니다. 예수님은 지상 사역에서 자신이 하나님과 동등하시다고 주장을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죽음에서 살리실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하나님의 인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신앙은 칭의 교리를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습니다(롬 4:25).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은 믿는 자마다 세상의 죄를 이기게 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예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의 부활의 확증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성도 또한 다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역사적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에 중요한변화를 가져오는 놀라운 진리가 됩니다. 예수의 부활을 떠나서 무덤 너머의 사건에 관한 진리를 확실히 말해 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죽음 너머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도 다시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몸에 병든 것도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고 하나님이 살려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쁨으로 일할 터이니 하나님이 힘 주시는 한 살 것이고 때가 되어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에 우리의 부활의 몸도 변화된 몸으로 나타납니다. 그때는 영화로운 몸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산 것이나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산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는 다릅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부활입니다.

하나님에의 재림하시는 그날 성도는 구원만 받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이니 주님 오실 그날을 간절히 소원하며 작은 아름다운 성도가 됩시다.

기도 초대 성도들 같이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집, 복지마을 속히 건립하여 주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4:1)

영원한 생명 우리는 날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의 터에 서있습니다. 사탄과 전쟁을 하며 무시무시한 힘과 전쟁을 합니다. 여기에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 군사 즉 영적 군병이 된 성도의 삶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영혼 속에 가득채워진 사탄의 세력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쫓아내시는데 즉 공격은 하나님이 하시고 방어는 성도 자신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로 사탄을 공격하시고 우리에게 새생명을 주셨는데 성령을 힘입고 그 생명을 지켜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면 대속의 죽음이 효능이 있고 주 밖에 서있으면 대속의 죽음이 효능이 없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같이 우리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고 하셨습니다(시 103:12). 자유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를 의롭게 하십니다. 예수안에서는 생명의 법이 사망의 법을 이겨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의롭게 해주셨습니다(롬 8:12). 이와 같이 고난도 받으시고 시험도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며 문제를 아시고 해결하실 수도 있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며 원수가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당시에 문제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을 그토록 사랑하시며 주 안에 서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좀더 깊은 권면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말을 서두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은 분명히 있을 것이니 믿음에 굳게 서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도록 주 안에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할 용기와 힘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힘이요 반석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주 안에 굳게 서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온전한 교인이 아니었습니다. 당파는 있고 이단도 있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나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성도는 목회자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 십자가 정병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화학교가 날마다 부흥하여 천국일꾼이 길러지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4:2)

기도 함으로 세상을 살면서 대인관계에 특히 어려운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거나 책망해야 될 경우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가피하게 잘못된 성도의 모습을 지적해 주고 그로 하여금 회개케 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경우를 접하게 되므로 그 상황을 보며 더불어 일하는 방법을 제시하게 된 것입니다. 더불어 일하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더불어 일하는 사람은 먼저 기도하는 일을 합니다. 기도로 도움은 것이 최고의 도움입니다. 기도해주는 사람을 만날 때에 목회자는 천만대군을 만난 것보다 더 힘을 얻습니다. 또한 협력해야 됩니다.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마음이 하나되기 위해서는 목적이 같아야 합니다. 바울이 간절히 원한 것은 마음이 서로 갈라지지 않도록 한 것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마음도 같고 사랑도 같고 뜻도 합하는(빌 2:2) 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은 믿는 자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는 형제가 되고 조화를 이룰 수가 있고 사랑을 베풀 수가 있으며 더불어 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을 지적하고 폭로시키고 그것을 공격하는 것은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서 그로 하여금 절망에 빠지도록 하는 일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는 열심이 특심한 사람이 있는데 간혹 잘못된 열심때문에 교회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 열심만이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인 줄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민주주의 정신이 교회에 충만해야 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큰 특징은 더불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에는 공동의회가 있고 제직회가 있고 당회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더불어 일하는 모습은 가장 아름답습니다.

「머리가 조금 빠르거나 많이 때웠다고 하는 사람이 사회나 단체에 가서 자꾸 돌림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좋으나 다른 형제에게 덕을 세워야 합니다.

기도 주님께 봉사하되 더불어 일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열어붙은 동토, 내 조국을 복음으로 녹여 주옵소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4:3)

주안의 형제 본문에 ‘멍에를 같이 한 자’에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지만 빌립보 교회의 목사님인 에바브로디도를 말합니다. 지난날 영광스러웠던 빌립보 교회의 목회가 몇사람에 의해서 깨어지게 된 이 마당에 사도 바울은 안타까운 권면을 에바브로디도에게 하고 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게라고 하는 두 여인이 비록 실수를 하고 교회에 큰 어려움을 가져왔지만 그들을 도와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실수가 있고 과오가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회개한다면 그것을 용서하는 것이 기독교 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멍에를 함께 멘 자들입니다. 형제의 잘못이 곧 나의 잘못이니 형제의 죄를 대신 지고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인생들은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악의 짐, 죽음의 짐, 율법의 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짐을 진 자들에게 다 오라고 했습니다(마 11:28).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짐을 지므로 멍에를 함께 져야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예수께서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실 때에 가졌던 마음의 자세로 믿음의 형제를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희생의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주님 앞에서 예수님에게 배운 마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간에 조화를 이루며 피차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멍에를 함께 진 자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조화를 이루며 함께 일하므로 멍에를 같이 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본문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비록 국적이 다르고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하더라도 주안에서 형제가 될 때에 우리는 그들과 함께 멍에를 지며 나가야 됩니다.

[[진실로 주 안에서 살고 있는지 자신을 향하여 물어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봉사가, 예배가, 찬양이 진정 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성도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도 절망에 빠진 형제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하옵소서. 동남아에 기아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4:6)

기도의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성도에게 새 힘을 주고 염려와 근심에 대한 모든 잘못된 것을 교정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하여 기도에 대한 구체적인 진리를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실존과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들으실만한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습니다(요 14:6).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떠나서는 하나님께 기도가 되지 아니하며 또한 응답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죄와 욕심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없이 욕심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추어진 죄를 자백하면 모든 불의에서 깨끗케 하십니다(요일 1:9). 그러므로 하나님과 자유롭게 대화를 하려면 제일 먼저 우리의 죄를 자복해야 합니다. 죄는 아무리 감추고 싸매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모르실리가 없습니다. 기도의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타인을 기도에 포함시키기 시작하므로 진정한 기도가 됩니다. 우리의 기도 속에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기도함으로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의 효능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근심을 치유하는 방법을 주셨으니 정직하게 요청하는 간구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종종 곤경에 처할 때가 있고 수많은 근심의 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어려움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날 혼합주의 종교를 부르짖는 사람들을 보면 불교를 통해서도 유교를 통해서도 하나님께 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니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갈 수도 올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기 전에 먼저 철저한 회개가 있게 하옵소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4:7)

기도함으로 기도는 예수님의 명령이며 앞서 가신 사도들이 간절히 권면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는 마귀가 득실거리고 있습니다. 마귀와 싸워 이기려면 기도의 무기 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하셨으며 지금도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기도는 또한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제요 신성한 대화로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경건할 수 없으며 의롭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바울이 늘 기쁨에 넘친 것도 기도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있는 기쁨을 지상으로 끌어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믿음과 기도는 동반자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는 사람,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다고 하는 말은 모두가 거짓말입니다. 기도는 연약한 믿음을 온전케 만들어 주며 모든 염려와 걱정과 궁핍으로 부터 자유케 합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인간을 도우시므로 기도하는 자에게 도움을 손길을 펴십니다. 기도와 말씀과 전도는 신앙생활의 중요한 삼대 요소가 되므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전도에 힘쓰는 것처럼 기도하는 일에도 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일꾼은 기도로서 일을 합니다. 지식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요 어떠한 조직이나 특별한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므로 하나님의 일은 가능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책임지신 분들은 기도하는 일에 더욱 힘을 써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에 교회는 더욱 부흥이 됩니다. 교회는 성도가 눈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는 한 부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도의 기도를 원하시며 듣고 계십니다.

합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는 산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하며 목사가 되겠다고 각오한 사람이 신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에는 성경도 안읽고 기도생활도 끊어지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를 부단히 합시다.

기도 예수님의 쉬지않는 기도를 생각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세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4:1)

은혜받은 자의 행위 성경은 때로 의심나는 문제들에 대해서 구체적인 제시를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간접적인 교훈 혹은 유추하는 내용을 가지고 대답을 찾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성도는 성경의 원리적인 입장에서 진리를 찾아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할 때에 법 아래 얽매이지 말고 구원받은 자로서 감사와 기쁨으로 그 법을 성취시켜야 합니다(롬 6:14).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과 그렇지 못한 자는 그 열매가 전혀 다릅니다. 의심나고 해결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율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은혜 안에 사는 자로서 그 일을 해결해야 됩니다. 또한 일을 행할 때에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유익이 되는지 자신에게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나는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은혜아래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롬 6:15). 이제는 은혜 아래에서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유롭게 일을 행하고 자유롭게 헌신하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도의 자유와 다른 성도의 영적 성장을 방해해서는 안되므로 스스로 절제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선택의 존재입니다. 바울은 이 선택하는 방법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최선의 것을 선택하는데 이것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얻어내는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 최선의 것을 말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생각하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성도는 모든 진리, 모든 정당한 것, 모든 순수한 것, 모든 사랑할 만한 것을 항상 생각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마다 은혜 중에 문제가 다 풀려지고 지혜를 갖을 수 있습니다.

하나 성도는 최선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야 하므로 이상주의자입니다. 그러나 현실을 끌어올릴 수 있는 행동하는 이상주의자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생각은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남게 됩니다.

기도 진정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헌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초현 세계선교원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속히 수립되게 하옵소서

「이는 받으실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4:18)

사랑과 관심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교회마다 긍정적인 면에서 나 혹은 부정적인 면에서 어떤 기억할만한 사건을 혹은 역사적인 일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교회는 믿음을 잘 지킨 교회요, 에베소 교회는 열심이 특심한 교회요, 고린도 교회는 분열과 도덕적인 부패와 우상숭배와 제물을 먹으면서 서로 다투는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누구보다도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한 배신자의 대명사가 되었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의 재림논쟁을 하면서 교회가 한바탕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하나님의 사자 바울의 부족을 채워주는 일로 후대에 널리 알려진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생각으로만 머물지 않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어 아름다운 전통을 남겼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에 있는 빌립보에 처음 갔을 때는 그 지방에는 그리스도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바울이 전도하여 그들이 교회를 형성하게 되자 이때부터 바울은 빌립보성도들을 사랑했을 뿐 아니라 그들의 사랑을 누구보다도 많이 받았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자기들에게 준 이 신앙의 유산을 잊을 수가 없어서 바울이 떠난 후에도 바울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졌고 한 순간도 잊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개척교회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립하지 못한 형편에서 힘을 다하여 특별헌금을 하여 바울의 전도사역을 도왔습니다. 바울은 성도의 헌금을 전해 받고 그들의 믿음이 성장한 것을 크게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물질을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정의했고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크게 격려하였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깊이있는 신앙인격과 균형잡힌 반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인격의 균형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고매한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성경은 교훈과 경고의 두가지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훈을 경고로 받고 경고를 교훈으로 받으면 큰 일 납니다. 고린도회의 분쟁은 경고로 받아야 하고 빌립보 교회의 선한 열매는 교훈으로 받아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기도 개척교회들을 돕는 일에 앞장서는 남녀 전도회가 되게 하옵소서. 파키스탄으로 선교팀에게 길을 열어 주옵소서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4:12)

균형잡힌 인격 바울은 어떠한 형편에서도 자족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성도들을 통하여 선교비를 공급받았을 때 선물을 받아서만이 기뻐한 것이 아니고 그들의 신앙의 성장을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바울은 어떤 환경의 지배도 받지 않았던 사람이요, 진정으로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초월적인 인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배도고파 보았고 매도 맞아 보았고 궁핍에 처해 보기도 했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보았고 대접받는 자리에 앉아도 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는 사람입니다.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안에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졌을 때에 교만하지 아니하며 가난했을 때에 비굴하지 않는 성숙한 신앙 인격이 수양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범인은 가난하면 비굴해지고 뭘 좀 가지면 교만해집니다. 누구나 다 이를 수 있는 신앙인격이 아니지만 누구나 다 흠모해야 할 인격이 이와 같은 균형잡힌 인격입니다. 바울의 인격은 약할 때 그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온나라가 기독교가 되면 교회가 왕성할 것 같고 나라의 장관들이 다 기독교인이 되면 한국이 잘사는 나라가 될 것 같지만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고난에 처하고 곤고함에 이르게 될 때에 강하게 됩니다. 바울은 능욕과 곤비함과 어려움과 곤경에 처하는 그 때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사하고 기뻐했습니다. 섰다고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자기의 약함을 생각하고 밤낮 울며 주님을 붙잡는 그 시간이 가장 강한 시간입니다. 바울과 같은 인격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신자에게만 가능하고 실제로 그런 사람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까. 교만하지 맙시다. 연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잃었습니까. 비굴하지 맙시다. 오직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사도 바울처럼 일체의 비결을 배웁시다. 그리하므로 능력주시는 자 안에서만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알게 됩니다.

기도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아는 자 되게 하옵소서 보츠와나의 전미령 선교사님께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내 괴뢰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4:14)

감사할 줄 아는 자 바울은 모든 일에 자족할 줄 안다고 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선물을 불필요한 것이라고 버리거나 되돌려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보낸 예물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했습니다. 이 선물을 보낸 것은 바울의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복음 사역에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이고 물질적인 이러한 온전한 향기로운 제물이 누구에게나 필요합니다. 그들의 도움은 바울을 세상 으로부터 자유케 하려 합니다. 이러한 성숙한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에 바울은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어느 교회든지 밖으로 내보내는 일이 꼭있어야 합니다. 예배당을 지어도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됩니다. 바울은 감사할 뿐 아니라 그들의 유익을 간절히 소원했습니다. 바울을 위하여 보낸 선물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을 준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길입니다. 그 분이 믿지를 않는 사람일 경우에는 그 복이 내게로 올 것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면 그 분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니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헌금의 경제원칙입니다.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할 수가 있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한 일이 없어 고통 중에서도 이겨 나갈 수가 있고 승리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일을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비천에 처해 계십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능력있는 그리스도 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바울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자가 됩시다.

기도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팔라우에 파송된 김익경 선교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4:23)

가장 좋은 약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절망에 이르게 되었을 경우 하나님의 약속을 먹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이 없습니다. 바울은 헬라인의 신도 알고 있었고 애굽과 앗수르, 로마의 신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의 신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격적으로 자기를 계시하신 야웨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바울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모세의 하나님이며 다윗과 엘리야, 예레미야와 모든 예언자들의 하나님이 되시어서 그들을 통하여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는 자기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며 자기 백성에게 공급하시고 자기를 믿는 성도를 약속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하고도 무너지는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인간의 불신실함 때문입니다. 그 다음은 자신과는 상관이 없이 환경의 영향으로 인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되 인간의 필요를 따라 채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탄으로 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때로는 훈련과 교훈과 시련으로 오는 때도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정금과 같이 되어진 후에 그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우리는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 됩니다. 바울은 개인적인 인사를 마지막에 정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 지도자들, 그리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 가이사 집에 일하고 있는 몇 사람들의 문안을 피차 하기도 하고 받기도 합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장은 성도간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줍니다. 바울은 여러 종류의 사람과 복음 안에서 교제를 했습니다. 대 합창단을 지휘하는 지휘자처럼 각 종류의 음색들을 조화시킬 수 있는 훌륭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쁘고 곤궁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것보다 더 시급한 일은 없습니다. 성경 도처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도 괴로울 때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인도네시아의 서만수 선교사님 내외분을 능력의 장중에서 사용하여 주옵소서

베드로전서

베드로전서는 60년대 초 로마에서 기록된 말씀이다. 수신자는 소아시아의 남부지방에 살던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다.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쓴 목적은 잘못된 재림관과 잘못된 신앙에 대한 권면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성도는 오래 기다려야 되는 인내하는 신앙이 필요하고 닥쳐 오는 고난과 시험을 기쁘게 감당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베드로전서의 중요한 내용이다.

본서의 기록자는 사도 베드로라고 많은 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지만 이의를 제기하는 이도 많다. 그러나 정통적인 복음주의에서는 베드로 사도의 기록을 의심치 않는다.

기록 시기는 네로 황제에게 죽임을 당하기 전 60년 초반에 기록되었을 것으로 본다.

기록 장소는 5장 13절에 바벨론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데 이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1:2)

은혜의 선물 사도의 축복은 의례적인 인사를 치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기도는 어떤 소원이나 기도보다도 그 의미가 더욱 크며 말씀의 능력을 주신 성령의 역사를 힘입고서 하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축도는 어떤 형식이 아니며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축도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민수기 6:24-27을 구약의 축도라고 합니다. 신약에서는 사도 바울이 축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처럼 죄지은 이스라엘을 억압으로 부터 뿐 아니라 그들의 죄로 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구주가 되신다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민 6:24-27). 베드로 사도는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평강의 왕을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이 편지의 수신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또한 부활하신 후에도 제자들에게 평강의 복을 빌어주셨습니다. 이 평강은 정치적 의미의 평강이 아닙니다. 로마 사람들은 힘의 대결, 힘이 센 사람이 약한 사람을 이겨야 평화가 온다고 생각을 했지만 기독교는 그런 평화관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은 정치적, 사회적 평화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도의 평강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이루어 집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찌어다’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의 축복은 베드로서 전체 메시지의 핵심이며 또한 함축한 말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축복으로 가득찬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성도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선물을 받도록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ㅅ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남과 북의 관계가 힘을 통하여 평화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로마인들의 평화관과 같은 것입니다. 힘의 대결을 통하여 이겨야 되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오직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이를 위해 성도는 눈물로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복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나누어 주는 자가 되게 하소서. 인도네시아 서만수 선교사님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를 거듭 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1:3)

완성될 소망 소망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소망을 보전하시는 분입니다. 소망은 생겨질 수도 있고 사라질 수도 있으나 그 소망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키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살아계시므로 소망은 현재에도 갖게 되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완성됩니다. 인간에게 소망이란 그 사람이 천국을 믿든 안믿든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희망은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하고 세밀하게, 마치 손 안에 쥐고 있는 것같이 뚜렷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에 부활하시므로, 하나님이 자기의 구원 사역을 성취시키시므로 이루어진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구원 받을 희망이요 죄와 사망으로 부터 건지움을 받게 되는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생을 변화시키는 실제로 베드로에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죽으셨을 때에 베드로의 모든 희망은 끝난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주님을 배신한 슬픈 기억으로 그는 괴로움에 빠져있었지만 예수님은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는 순간 베드로에게는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불투명한 희망이 아닌 산 소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의 승리의 면류관이에요 베드로에게도 승리가 되듯 이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승리가 되는 희망입니다. 부활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가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 만들어 내신 작품입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갱신되도록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서 우리를 다스리시며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십니다.

†† 예수님의 부활에 소망을 거는 성도가 됩시다. 인간적인 소원이나 희망사항은 때로 좌절되고 실패를 하게도 되지만 부활에 거는 희망은 이미 이루어진 소망이므로 확실한 소망입니다.

기도 부활하시므로 인간에게 참 소망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 파라과이의 김재창 선교사님을 통하여 원주민 선교를 이루시
옵소서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잇게 하시나니」(1:4)

구원의 땅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땅 위에 출생하게 하실 때는 받을 만한 기업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나는 사람 가운데는 기업을 받지 못할 사람도 없고 다 기업을 누려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업은 부모로부터 상속 받는 재산 혹은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이라고 하는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도 온유한 자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마 5:5). 이 땅은 무엇입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방황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약속을 믿고 산 것처럼 신약시대의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붙잡고 비록 땅에서는 외인이요 나그네로 살면서도 땅의 것에 연연해 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본문에서 약속하신 기업의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썩지 않을 기업입니다. 세상에는 모든 것이 다 부패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기업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았으나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언약을 파하므로 그 땅이 황무하고 쇠잔하게 되었습니다(시 24:3-5) 그러나 우리가 받을 기업은 썩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버리고 떨어지는 날이 만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어느 것을 지나치게 부러워 할 것도 아니고 대단히 여길 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잠시 지나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것에 소망을 품지 않고 영원한 것에 소망을 품고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19절, 20절을 보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보물은 성도의 재산 증식이나 예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말합니다. 천국창고에 가득히 채우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썩지 않는 기업을 주신 하나님, 땅의 것에 연연하지 않도록 붙들며 주옵소서. 칠레의 유재일 선교사님을 붙드시고 신학교 부지 매입금이 충당되게 하옵소서.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1:4)

하나님 자신 하나님께서 주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은 무엇일까요.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말세에 구원을 주시려고 하늘에 구원을 예비해 두신 것입니다. 완성이 되는 기업은 마지막날에 올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지금도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성도는 약속된 이 기업이 없으면 벌써 세상으로 쫓아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람이 불고 유혹이 와도 요동치 않고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은 이 약속의 기업, 영원한 구원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이스라엘 자손의 땅의 기업도 없고 아무 분깃도 없으나 하나님 자신이 아론의 기업이며 분깃이 된다고 하셨습니다.(민 18:20). 우리의 기업은 곧 하나님이신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기업은 영원한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시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예표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에서 부터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생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죄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다 용서받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들은 아직도 오는 구원, 완성된 구원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구원은 믿음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 이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또한 하나님이 이루신바를 기뻐하는 이들에게 쓰고 있습니다. 믿음은 구원을 받기 위한 수단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자신이 보호 받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라」 이것이 저 유명한 아브라함의 계약입니다. 이 약속은 예언자들의 약속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괴로울 때 곤고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므로 매사에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기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기업이 되신 것을 찬양합니다. 남미 수리남으로 재파송되는 안석렬 선교사님을 형통케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1:5)

도래하는 새 희망 예수님의 부활과 더불어 그가 영광으로 들어가
시므로 새시대는 열리게 되었고 새희망을 우리 앞에 도래하
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부터 다시
나타나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많은 공로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
시므로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성취되었고 또 성취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그리스도가 오시므로 실현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만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영접한 성도가 산 소망을 가지는 이유는 우리도 살아나겠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로 하나님은 우리로 부터 시작
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부활은 그리스도를
무덤에서 아버지의 보좌로 옮겼습니다. 모든 것의 새 날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출발이 되었습니다. 성도에게 새생명은
죽어서 다시 부활할 때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때에 얻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하여 우주를
회복하는 날이 올 것임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행 4:21).
육신은 날로 부패하나 주 안에 있는 성도의 영혼은 날로
새롭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도가 중생하는 수단이
아니고 그 사건 자체가 중생을 얻게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은 이와 같이 구원의 확실성을 고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워하고 말씀을 사랑
하는 사람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시작할 수도 유지할 수도 없는 매우 제한된, 부족한 능력을
가진 인생들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드리므로 하나
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가 있는 성도가 됩시다.

†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중생을 주신 하나님께서 산
신앙으로 인도 하십니다. 제한적인 인생은 오직 예수 그리스
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기도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덧 입히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독일의 육호기 선교사님을 통하여 복음이 심어지게 하옵소서.

23 (금)시험의 의미

찬송 502, 성경 뱀전 1:5~9

「시험을 인하여 잠간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으나…」(1:6)

기쁨의 통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시험을 당해도 그리스도 안에서 당해야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시험은 전혀 유익이 없습니다. 희망이 되어 주신 예수님 안에서 시험이 올 때 그것을 통해 기쁨이 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한 반사로 만들어진 성도의 참 기쁨입니다. 성도들에게는 부활이 있고 구원의 영광이 있고 소망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시험이 있을 것이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시험을 받게 되면 근심을 하지만 이 근심은 잠시 뿐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어 고난의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긴 세월이 아니므로 주님을 따르는 성도에게도 잠시 시험이 있되 이 시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므로 참고 견디면 말할 수 없는 복을 주십니다. 성도들은 주님을 본받아 털썩는 자 앞에 서있는 양과 같이 고난을 당할 때에 참고 견디면서 그 고난을 승리로 이끌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으셨으며 우리의 죄와 허물은 영원토록 남아 멸망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캄캄한 밤이 가야 아침 해가 돋듯이 희망이란 불같은 시험 뒤에 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이 구원될 것을 아셨고 부끄러움과 고난 뒤에 올 영원한 승리와 기쁨을 알고 계셨고 무엇보다도 부활되실 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통하여 점점 강해집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주시되 견딜 수 있을 만큼 주시므로 믿음을 가지고 시험을 이겨내어 영광에 이르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긴 순례의 길을 가는 동안 계속 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인내를 가져오고 그 시련은 우리를 성실하게 합니다. 시험이 닥칠 때에 놀라지 말고 참고 견디므로 기쁨을 얻는 성도가 됩니다.

뜨거운 보석은 풀무불 속에 넣어 순전하게 하듯 하나님은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시험과 환난의 불 속에 넣어 깨끗하고 순전하게 만들어 강하게 하심을 알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기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며 감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애굽의 이준교 선교사님을 통하여 신학생들이 바른 강의를 듣게 하옵소서.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1:9)

장차 받을 영광 성도가 당하는 고통을 주님은 결코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으신다고 했습니다.(시 56:8). 사도 바울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으며 베드로 역시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받을 영광의 면류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긴 터널을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영광의 햇살을 볼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산상에서 변화되신 주님의 영광을 목격했으며 구름 속으로 승천하실 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을 분명히 귀로 들었습니다. 우주가 재창조될 날은 주 예수의 날로 그 날은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공포의 날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는 환희와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며 기뻐하십시오. 고난을 이겨내면 하나님이 면류관을 주실 것이요 우리는 그 면류관을 주님께 바칠 수 있습니다. 나같은 죄인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다면 성도에게 이보다 큰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그날에 다시 오십니다. 그날에 우리 믿음의 목표는 성취가 될 것이니 비록 지금 눈으로는 보지 못하나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의 영혼의 구원은 믿음이 바라는 목표입니다. 썩어질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 완성된 구원을 기다리지만 우리는 이미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육신으로 오셨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희망은 실현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다시 오시므로 하나님 나라는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목표는 미래적입니다.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고난의 터널을 활기있게 달려가는 성도가 됩시다.

†성도는 진정으로 헌신한 바울과 베드로와 그밖에 다른 사도들의 모습을 본받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 헌신할 수 없습니다.

기도 주님의 고통을 생각하며 이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하옵소서. 김주경 선교사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순례자들이 복음을 듣게 하옵소서

「이 구원에 대하여는… 부지런히 살피서」(1:10)

예수님의 입증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데는 두 가지 단어가 반드시 같이 나와야 하는데 그것은 고난과 영광입니다. 십자가를 강조한 나머지 영광이 감추어지거나 영광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고난이 무시되어서도 안됩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존재하지 않고 영광 없는 고난은 무의미 합니다. 따라서 성도의 삶도 고난과 영광이 함께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으신 것은 고난이며 다시 살아나신 것은 영광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고난과 영광을 입증하셨습니다. 영광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수많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 모든 약속의 결국은 영광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영광에 대해서 비전을 가졌습니다. 성도는 이와 같이 영광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고난과 영광의 모형은 교회에 깊은 의미를 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므로 머리되신 예수님처럼 고난의 옷과 영광의 옷을 함께 입어야 됩니다. 교회가 매일같이 고난만 받아도 안되고 영광만 받아도 안됩니다. 이 두 가지 모습을 잘 조화있게 적용하면서 받아들일 때에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고난의 메시아에 대해서는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여러번 나타나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42장, 53장은 메시아 고난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백성들은 영광의 메시아를 찾고 있지만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우리 가운데 조용히 오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감사하게 받는 성도가 되려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그 은혜로 진리를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고난이 없는 구원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신다고 한 선지자들의 예언은 전적으로 그리스도 영의 지시를 따른 것이며 성도는 그러한 하나님 뜻을 살피 그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고난, 하나님을 위한 고난을 영광스럽게 받아들이고 진정한 의미를 깨닫습니다. 십자가의 참 뜻을 묵상합시다.

기도 천사들도 흠모한 계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 주님 감사합니다. 서사모아에 박행렬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과 사랑이 전달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1:13)

희생과 수고 성도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아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으로 부터 오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그것은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셨는가를 먼저 알고,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1장 전체에서 이 점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미 마련되어 있는 거룩한 희망에 복종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내시는 하나님, 희망을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성도로 하여금 희망을 갖도록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한 소망이며 명백한 명령입니다. 소망을 갖되 온전히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주실 은혜,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붙들고 행동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희망을 건 것은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자신을 희생하고 남의 나라 심지어 아프리카 오지에 가서 고생을 하며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믿음으로 온전한 희망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걸고 있는 희망 모두가 흔들리는 희망이요 잠시 잠깐 후면 후회할 희망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보고 온전한 희망을 갖게 됩니다. 성도의 희망은 무조건적인 희망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을 확인하고 가진 확실한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라고 사는 성도는 근신하고 조심하며 살아갑니다. 말씀에 절대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이전 알지 못할 때 좇던 옛사람의 사욕을 버리는 것이 근신입니다. 기도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근신입니다. 그러므로 근신하는 자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새질서 속에 나타난 희망까지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행동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질서있게 살아야 합니다. 지혜롭고 정리된 삶을 사는 성도가 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고 하는 말은 행동할 준비 자세를 취하라는 말로 성경의 여러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날을 기다리며 허리를 동이며 근신합시다.

기도 주님을 섬기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연변에 신학교가 속히 건립되도록 길을 열어 주옵소서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1:15)
 제사보다 순종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생활을 하는 이유는
 재림하실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삶을 조정하시기 때문입니
 다. 과거에서 출발하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미래에
 있을 심판에 초점을 맞추고 살기 때문에 현재의 모든 일들
 은 미래에 의하여 조정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
 만이 갖는 매우 중요한 행동원리입니다. 우리의 판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들이 되었습니
 다.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의 완전한 순종의 공로
 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역사가 마지막 심판장에서 일어나
 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재판장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녀의 상속을 주시므로
 성도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서지 않아도 됩니다. 베드
 로 사도는 레위기를 인용하여 하나님은 거룩하시므로 하나
 님의 백성도 거룩해야 됨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이 임재하
 실 때 요구될 성결함이 성도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불결함이 있거나 불의한 것이 섞일 때 하나님께서는 지체없
 이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곳은 심판의 대상이요
 지옥입니다. 성도는 거룩해야 되는데 더럽히는 것들이 있습
 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
 보다 순종을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복음을
 듣고 순종하도록 이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비록 자식이지
 만 순종하지 않는 자식은 사랑이 끊어집니다. 예수님께
 자기를 쳐 복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은 그의 거룩한
 품성에서 나오듯 성도는 변화된 인격에서만 거룩한 행실의
 열매가 가능합니다. 심중에서 흘러나오는 거룩의 열매는
 사랑입니다. 성도는 구원하신 사랑을 모방해야 하며 하나님
 의 자비로운 사랑을 성령으로 우리의 가슴에 붙여넣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는 순종을 했을 때에
 그에게는 거룩이 직면해 왔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순종하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거르낌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4월22일에 안수받은 집사와 취임 받은 권사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1:22)

진리 위에 성도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이 깨끗해 집니다. 거룩한 삶이란 결국 진리 위에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나오는 모습은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위에 거룩과 사랑의 기둥을 세워야 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이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를 새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과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분량에 까지 이르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와 거룩과 사랑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나까.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대한 요청입니다. 인위적이고 위선적인 사랑은 뜨거워질 수가 없습니다. 옛계명과 새계명은 무엇이 다른니까. 옛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몸과 같이 사랑한다고 했지만 새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옛계명의 사랑의 규범은 자기 자신이었지만 새계명의 표준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겻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고 마지막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뜨거운 사랑으로 성도가 피차에 사랑하라는 말입니다. 성도는 구원의 은총을 받은, 주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지난날에 형제를 향하여 투기하던 마음으로 갈라섰던 마음들로 부터 벗어나 사랑의 사람이 되라고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사랑의 본질은 은혜요 자비입니다. 받은 것만큼 준다고 하는 계산된 사랑은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은혜와 자비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도는 이웃을 만날 때에 이와 같은 은혜와 사랑으로 대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살았으므로 이기심과 교만으로 뒹군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기심과 교만과 자기 중심적인 것들은 진리 위에 사랑과 거룩의 기둥을 세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부터 뿌리채 뽑아냅니다.

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형제 사랑을 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옵소서. 계속되는 제자 훈련이 말씀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29 (목)말씀을 따라

찬송 379, 성경 뵈전 1:23~25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1:23)

새생명 성도는 복음으로 새생명이 생겼으니 복음으로 인하여 성장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사랑도 복음을 통하여 나타나야 합니다. 감정이나 지식적인 표현의 사랑은 진정한 의미의 사랑이 아닙니다. 진리를 순종하므로 영혼이 깨끗해지고 영혼이 깨끗한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진리를 바르게 순종하는 것이 기록을 이루는 방법이라고 했으니 이것으로 성도는 성결해질 뿐만 아니라 새생명을 얻게 됩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 든든히 세워지지 아니하면 뿌리가 깊이 박히지 못한 나무와 같아서 쉽게 뽑혀집니다. 성도는 굳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달게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것같이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회심케 하고 거듭나게 하고 새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반드시 이루어지며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 곁에 계시고 영원토록 계시는 말씀은 영생까지도 창조하십니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은 영원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영광은 끝나는 날이 오고 육신의 생명은 마치는 날이 오고야 마는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영생의 길을 가게 되고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가장 미련한 존재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므로 살아야 됩니다. 성도는 말씀을 자주 들어야 됩니다. 많이 들어야 되며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고 먹지 못하게 되면 성도는 시드는 꽃과 같아 힘이 없어지고 영원히 매마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비웃었으며 천사가 마리아에게 수태를 예고할 때도 그 말씀을 무시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이 모든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거룩케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으므로 성도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기도 말씀을 따라 살므로 영생을 이루게 하옵소서 5월에 개강될 부부 교양대학에 온 가족이 참여하게 하옵소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2:2)

성장하는 신자 본문 1절은 성장하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거듭난 사람은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성장해야 됩니다. 신령한 젖은 성도를 양육시키는 수단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젖을 사모하므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말씀을 많이 먹어야 되고 자주 먹어야 되고 또 배워야 됩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으며 무슨 뜻인지 모를 때도 있으나 논리적으로는 몰라도 그 말씀은 우리의 영혼에 부딪쳐서 알고 모르는 사이에 무럭무럭 성장합니다. 잘 모르는 말도 자꾸 듣다보면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결국은 진리의 맛을 알게 됩니다. 복음에는 호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성도를 권면하고 설득하여 설교를 듣다가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마음이 있다가도 나중에는 복종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연구하면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을 꾸고 계시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고 그 밖에 잡다한 어떠한 것으로 만났다고 할 것이 아니라 성도는 오직 살아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교회는 말씀 위에 세워졌습니다. 말씀이 아닌 것은 철저하게 배제되어야 합니다. 종교를 빙자하여 불의한 것 위에 교회를 세우면 안됩니다. 성도가 성장하는 최종 목적은 구원입니다. 복음을 선포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구원 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힘입습니다. 말씀 위에서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성장하게 되면 말씀이 또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성장한 신자에게 믿음이 주어지는데 그 믿음은 성도를 성결케 하고 그 사랑은 우리를 강령하게 하고 은혜를 충만하게 하여 새생명을 말씀으로 주신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성장하게 하십니다. 오직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장하는 성도가 됩시다.

첫종교를 빙자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사교 가운데 통일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전례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습니다. 통일교가 이 땅에 빨썩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합시다.

기도 문선명의 정체를 백일하에 드러내시고 이 땅에 발붙이지 못하게 하소서. 6월6일 부터 있을 특별 새벽기도회 위에 은총을 더하소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찌니라」(2:5)

하나님께 가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 받은 성도는 모두가 될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각각 성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인 성전이 된 우리들은 신분과 사역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목적을 달리하고 삶의 가치관을 달리해야 됩니다.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성도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출 19:5~6).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이 되고 제사 직분을 감당하는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지 않은 백성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잘 지킬 때에 제사장이 됩니다. 택함을 받은 백성의 특징은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서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서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 언약의 계약 속에서 다른 백성과 구별이 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언 받았지만 그들은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고 불의에 빠지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언약의 파괴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언약 파괴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파괴하므로 사탄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신 것은 기적입니다.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봉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이 될만한 자리에서 쫓겨났다 회복이 되었고 회복이 될 때에는 이방사람도 회복이 되었으므로 우리는 모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부끄러움 대신에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니』 이제는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집을 이루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서워 도망 가는 사람이 되지말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제사장과 같이 사는 성도가 됩시다.

기도 제사장의 직분을 바로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3월에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4월에도 복을 주옵소서.

가정예배 안내

예배 순서

- 1) 찬 송 ...다같이
- 2) 성경봉독 ...사회자
- 3) 메시지 낭독
- 4) 기 도 ...그날의 기도와 그달의 기도
- 5) 주 기 도 ...다같이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찬송과 성경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



충현만나 · 1990년 3월호 · 등록번호 / 제9-110호(1977. 10. 21)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충현교회 출판부(서울특별시 강남
구 역삼동 665-1 / 전화 562-4181-3)